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사순 제2주일

2025년 3월 16일 / 제681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목·금·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주일 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 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울드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김지용 제1독서 이준혁 제2독서 한수현 / 입당 117 봉헌 210 성체 174, 152 파견 491
Narrator Hawlan Ng 1st Reader Jun Vicencio 2nd Reader Isabella Chung

입당 송 | 시편 27(26),8,9 참조

주님, 당신 얼굴을 찾으라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제1독서 | 창세 15,5-12,17-18

화답 송 | 시편 27(26),1,7-8,9,13-14(◎ 1ㄱ)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라? ◎

○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하소서.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주님, 당신을 생각하나이다.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

○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당신은 저를 돕는 분이시옵니다.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제2독서 | 필리 3,17-4,1 <또는 3,20-4,1>

복음환호송 | 마태 4,4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 루카 9,28L-36

영성체송 | 마태 17,5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일학교 및 영어미사 안내]

3월 16일	주일학교 YES	Fr. Jim
3월 23일	주일학교 YES	Fr. Philip
3월 30일	주일학교 YES	Fr. Gus
4월 6일	주일학교 NO	Fr. Augustine



"기도 부탁드립니다."

Yong Ah Lee, 윤정의 알폰소, 박길손 수산나, 이순옥 데레사, 김난수 로사, 주종남 바오로, 이동식 토마스, 김정희 데레사, 정종락 필립보, 배예흠 요한사도, 배비임 알비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난 너머의 영광을 향하여

지난 3월 5일 재의 수요일과 함께 시작된 사순 시기는 어느덧 제2주일에 다다랐습니다. 이 사순 시기 동안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셔서 몹시 지치셨거나,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고뇌에 가득 찬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순 제2주일인 오늘 루카 복음사가가 들려주는 본문 속 예수님은 수난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영광스럽게 변모된 모습입니다. 언뜻 보기에 수난과 영광은 서로 잘 어울리지는 않는 듯합니다.

사실 오늘 복음인 루카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시작하신 갈릴래아 전교 활동을 전하는 4장부터 9장까지의 여정을 마무리 짓는 부분이며, 특히 9.51은 새로운 국면,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시작은 예수님의 공생활에서 전환점이 되며, 예수님께서 성부 하느님께 파견 받으시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려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향하고 있고 거룩한 도시라고도 불리는 예루살렘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여겨졌으며,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과 부활의 장소가 될, 하느님의 아드님이 지상에서 하신 여행의 최종적인 목적지로 나타납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변모를 서술하면서 그분의 달라진 얼굴과 하얗게 빛나는 의복이 상징하는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언급하지 않고, 그분께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신 이야기도 함께 전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과 “곧 세상을 떠나실 일”로, ‘떠나실 일’은 이 문맥 안에서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

사하고, ‘이루실 일’은 예수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예언의 성취’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사화는 영광만이 아닌 그분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만 했던 일들에 대한 예고를 이미 포함하고 있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거절과 수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짐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 안에서 오늘 복음의 변모 사건은 예수님의 수난과 영광을 앞당겨 보여주며 앞으로 맞이하게 될 기쁨과 희망의 시기인 부활을 준비시켜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수난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한 준비의 시간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희망으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강병완 브루노 신부 | 성바오로수도회

3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들
For families in crisis

회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용서를 통하여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다름 안에서 각자의 은사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Let us pray that broken families might discover the cure for their wounds through forgiveness, rediscovering each other's gifts, even in their differences.

<p>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준 침, 안약, 체중조절, 동증조절, 체질감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STAR태권도 STAR TAEKWONDO 跆拳道 하성곤 요제프 (925)404-9765 1490 N. Vasco RD, Livermore StarTaeKwonDo.com MasterHa@StarTaeKwonDo.com</p>
<p>N² ART & DESIGN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p>	<p>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 탐탁 부동산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p>	<p>미술교실 전문민화 · 수채화 · 드로잉 · 아크릴화 모던민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런 가사로 시작되는 생활성가가 있습니다. 학생 때부터 참 좋아해서 종종 흥얼거리던 성가인데요, 2008년 이후로는 “하느님, 우리 주여”로 제목도, 첫 가사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것은 교황청이 ‘야훼’라는 하느님의 이름을 전례와 성가, 기도에서 사용하거나 발음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침을 내면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도 이 지침을 따르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공동번역 성서과 달리 새번역 성경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계시하시는 탈출기 3,15; 6,2 등의 구절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어 ‘야훼’를 모두 주, 주님, 하느님으로 번역합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 ‘야훼’로 쓰여있는 것을 ‘아도나이(나의 주님)’로 읽었기에 우리 말에서도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더구나 나이가 한 두 살만 많아도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생각하면 우리 정서에도 잘 맞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 결과로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 안에서 ‘야훼’라는 말 자체가 잊혀진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름은 “본질과 인격의 신원과 그 생명의 의미를 표현”(가톨릭 교회 교리서, 203항)하기에 하느님의 이름이 계시되었다는 사실과 그분의 이름 자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느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기에 유대인들이 ‘야훼’로 쓰고 ‘아도나이’로 읽었다면, 우리는 ‘하느님’이라 쓰고 그렇게 읽으면서도 머리 속으론 ‘야훼’라

는 이름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야훼’는 ‘나는 곧 나다’, ‘나는 있는 나다’, ‘나는 있는 자이다’의 의미(가톨릭 교회 교리서, 206항)를 지닌 신비한 이름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당신은 누구십니까?’에 대한 대답이 ‘나는 나야’라는 식이니 이견 이름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안 알려준 것도 아닌 아리송한 대답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하느님 이름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어떤 대상의 이름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 속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정해지곤 하는데(예를 들면, 지능이긴 한데 인간이나 동물의 자연적인 지능과 구별되는 인간이 만든 지능을 인공지능이라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느님의 존재는 그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고 오직 하느님 자신으로만 표현 가능하니, ‘나는 곧 나이다’ 같은 방법밖에는 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라도 당신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알려짐으로써 하느님은 우리와 무관하며 결코 만날 수 없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를 ‘너’로 삼는 ‘나’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숨어 계신 하느님’(이사 45,15)이시며 그 이름은 말할 수 없고, 그분께서는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가톨릭 교회 교리서, 206항)이십니다.

또한 ‘야훼’는 ‘나는 있는 자이다’, 곧 오직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 늘 상대가 필요한 세상의 피조물들과 달리 그분은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그분의 이름에는 시작도 마침도 없이 영원히 오직 그분만이 ‘있다’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13항).

<p>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매장에서 도와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SUE CHO CELL: 530-220-2848</p>	<p>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HARMONY ACUPUNCTURE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 Dublin Pediatric Dentistry & Orthodontics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Elizabeth Jihyun Kim, DDS, MS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p>	<p>COMPASS REALTOR® 부동산 AIDEN KIM 에이든 킴 (니콜라오) 부동산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 DRE # 01983236 TIM MCGUIRE TEAM</p>
<p>West Dublin PETSMART 한국어상담가능 수의사 임경택 6960 Amador Plaza Rd, Dublin 925-644-3114 DublinCA@petsmartvetservice.com</p>	<p>James Golf Class 어려운 골프 쉽게 쉽게! Instructor: 나정태(제임스) 925-434-2659 jrha.golf@gmail.com USGTF License #: 11512</p>	<p> 하나비 스시 HANABI SUSHI 계상진 빈첸시오 조성아 데 레 사 927 Main Street A Pleasanton, CA 94566 Tel) 925-596-3645</p>



■ 사순시기 주요 전례 일정

- 4월 2일(수): 판공성사(한국어), 오후 7시 - 오후 8시 30분
- 4월 3일(목): 판공성사(영어), 오후 7시 - 오후 8시 30분
- 4월 13일(주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오전 9시
- 4월 17일(목): 주님 만찬 성 목요일(합동미사), 오후 8시
- 4월 18일(금): 주님 수난 성 금요일, 오후 8시
- 4월 19일(토):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미사 (합동미사), 오후 8시

■ 부활 판공성사

- 일시: 4월 2일(수): 오후 7시 - 오후 8시 30분 (한국어)
4월 3일(목): 오후 7시 - 오후 8시 30분 (한국어, 영어)
- 장소: 소성당 고해소
- 사순시기에 보시는 고해성사는 모두 판공성사에 해당됩니다.
- 성사를 보신 분들은 성사표를 제출해 주세요.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안내

-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영어), 오후 8시(한국어)
-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 장소: 대성당

■ 십자가의 길 봉사 일정

3월 21일	마태 4, 5반
3월 28일	마태 6, 7반
4월 4일	루카 1, 2반
4월 11일	루카 3, 4·5·6반
4월 18일	루카 7, 8반

■ 울뜨레야 월례 모임

- 이번 월례모임에는 간식나눔과 소모임에 이어 사순시기 꾸르실리스타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함께 바치겠습니다. 모든 꾸르실리스타 형제, 자매님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3월 16일(주일), 오전 10시 45분 - 오후 1시
- 장소: 소성당 뒷편(간식), 십자가의 길(대성당)
- 준비물: 길잡이 책
- 문의: 김현희 바드리시아(510-396-4740)

■ 사랑의 모후 꾸리아 아치에스

- 모든 레지오 단원이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아치에스 행사를 진행합니다.
- 일시: 3월 23일(주일), 오전 10시 45분 - 오후 1시 30분
- 장소: 소성당
- 대상: 모든 행동 단원 및 협조단원
- 준비물: 레지오 기도문, 묵주

- Rice Bowl(사순저금통)이 성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마음으로 온가족이 함께 정성을 모아 봉헌합시다.

■ 성경공부반 모집

- 북가주 가톨릭성서모임에서 성경공부를 시작합니다. 관심있는 신자들은 안내데스크에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과목: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및 영어권을 위한 성경공부 과목도 동일함
- 시작일: 그룹이 형성되는대로 가능함
- 문의: 임무영 알렉산드라(408-386-0656)

■ 3월 반모임 일정(www.tvkcc.org/2025cellmeeting)

마태 6반	3/15 (토) 5:00PM	Room A	925-719-9737
루카 3반	3/16 (일) 12:00PM	파리바게트	720-971-7256
마태 3반	3/22 (토) 6:30PM	이주일·유연호 가정	925-922-7489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792.15	\$263	\$2220	\$85	\$140	\$4237.15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용재(3), 배성준(2), 윤혜숙(3), 이연호(3,4), 이정미(2,3), 이주하(3), 임승원(1-4), 장두만(3,4), 전은석(2,3), 최원숙(3), 하창완(2), 함종식(3)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이주하(3), 최원숙(3), 하창완(2), 함종식(3)

- Bishop's Appeal

이주하(3), 임승원(1-4), 최원숙(3), 하창완(2), 함종식(3)

- 감사봉헌금 최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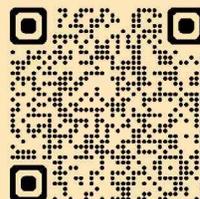
- 간식봉헌 박우성·임현지 레지나 / 이종구 안드레아·김난수 로사

사순시기 "신앙의 신비여!" 응답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큐알코드 스캔하고

온라인 봉헌 페이지로 바로 가기

Scan To Online Donate

